

수달·담비도 '로드킬'...국립공원 동물들은 불안하다

무등산 등 방문객 증가에 천연기념물 등 매년 70여마리 숨져 지난해 94건으로 코로나 이후 증가...공단, 발생 최소화 분주

최근 5년새 광주·전남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로드킬' (Roadkill, 동물 교통사고)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등 매년 70여마리의 야생동물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기간 방문객이 감소하면서 로드킬은 급감했지만, 코로나 엔데믹 이후 다시 국립공원내 도로에서 차에 치여 죽는 동물이 늘고 등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15일 광주일보가 국립공원공단(공단)에 정보공개 요청한 '광주·전남지역 국립공원 로드킬 모니터링 결과' (2019~2023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국립공원(무등산·지리산·월출산·다도해)

에서는 94건의 로드킬이 발생했다.

2019년에는 144건이었지만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54건, 2021년 34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방역이 완화된 2022년부터 42건으로 점차 증가했다.

공단은 국립공원 사무소별로 로드킬이 자주 발생하는 구역을 지정해 매주 2차례 로드킬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국립공원별로 무등산에서 발생한 로드킬은 광주 시 북구 청풍동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15건에 달했다. 지리산에서는 2019년 79건이 발생했다가 2021년 28건으로 감소했지만 2023년 84건으로 3배 가량 늘어났다.

지리산의 경우 구례, 남원, 경남 함양·산청 등 4개 소재지 중 구례에서 가장 많은 로드킬이 발생했다.

2019년 지리산에서 집계된 로드킬 79건 중 41건(51%)이 구례에서 발생했으며 2020년에는 25건 중 16건(64%), 2021년에는 28건 중 16건(57%), 2022년에는 20건 중 10건(50%)이었다.

2023년에는 84건 중 22건(26%)으로 다소 줄어 들었다.

월출산은 2019년과 2020년에는 로드킬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2022년부터 2년간 7건이 발생했다. 다도해에서는 2020년과 2021년에는 1건과 3건에 그쳤지만 2022년 12건으로 대폭 늘었다.

다도해에서는 다른 국립공원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참새, 숲새, 쌍둥새 등 조류의 로드킬 비율이 높았다. 바다가 대부분인 다도해에서 트인 하늘을 날던 참새에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천연기념물과 멸종 위기종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 2022년 11월 13일에는 무등산(북구 화암동 시도 18호)에서는 멸종위기종인 담비가 차에 치여 죽었다. 앞서 같은해 5월 11일에는 다도해(신안군 흑산면)의 국도에서 천연기념물 수달이 사체로 발견됐다.

2020년 5월 26일에는 지리산(구례군 광의면)에서 천연기념물 원앙이, 2019년 9월 27일에는 구례군 마산면에서 천연기념물 하늘다람쥐가 죽임을 당했다.

지난해 4월에는 멸종위기종 담비 2마리가 지리산 국립공원 내 경남 산청군 삼장면에서 차에 치여 죽었고 같은해 8월 27일에도 담비 2마리가 로드킬을 당했다.

공단은 로드킬을 막기 위해 사고 다발 구간에 갑속 안내간판과 반사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시를 활용한 '야생동물 로드킬 예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10월부터 공단이 포스코DX와 협력해 한려해상에 적용 중인 예방법이다. 도로에 첨단센서와 스마트 CCTV를 설치해 야생동물을 감지하고 종류를 판독한 뒤 모니터링 구간에 설치된 LED 전광판에 동물출현을 표출해 운전자에게 알리는 기능이다. 이 시스템은 설치비용이 적지 않은 탓에 한려해상에만 있고, 광주·전남지역 국립공원은 갑속 안내간판 설치로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국내에 로드킬 예방 기술이 다양화 돼 있지 않아 도로 페인팅과 간판, 반사판 등이 주로 쓰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태 통로를 조성하거나 갑속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등 로드킬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I ♥ 태권도 15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2024 광주국제태권도아카데미에 참여한 외국인들이 품새를 익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서울시청역 참사’ 운전자 가속페달 90% 이상 밟아”

국과수, 감정 결과 통보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1일 국과수로부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한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사고기록장치(EDR)를 국과수에 정밀 감정 의뢰했다.

국과수는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엑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등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은 인근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반사돼 보이는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일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실제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된다"며 "국과수 감정 결과 통보 내용으로 운전자 진술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전자 차씨는 지난 4일 첫 회의를 조사에서 "사

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고 진술하는 등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차씨는 사고 직후 갈비뼈 골절 등을 당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쪽지를 남긴 20대 남성과 40대 남성 두 명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더불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에 게시된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 5건에 대해서도 내사 중이다. /연합뉴스

북구, 음식점 19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생고기' 등의 메뉴로 유명한 광주 북구 한 정육 식당에서 손님 먹고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을 한 사실이 적발돼 진행된 특별점검 결과 북구내 19곳의 정육식당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광주 북구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식육 취급 일반음식점 362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19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적발 사항 별로 '건강진단 미실시' 10건, '위생모 미착용' 2건, '냉장고 미청결' 1건, '보관방법

미이행' 1건, '폐기물 투쟁 미비치' 4건, '소비가한 경과 제품 보관' 1건 등이다.

북구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5일과 함께 검찰로 송치했다.

한편 지난달 잔반 재사용으로 논란이 된 북구 용두동의 한 정육식당은 21일 위생점검을 실시해 4개 항목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식당업주는 폐업하려 했지만, 현행법 상 행정처분 이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달 30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종료돼야 한다. /김다인 기자 kdi@

'기동대 뒤통수 가격' 경찰서장 징계성 보직 변경

집회 현장에서 시위를 진압하던 기동대 경찰관의 뒤통수를 때려 논란이 된 운주현 영암경찰서장의 보직이 변경됐다.

15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운주현 영암경찰서장은 16일자로 전남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 기획정보화 장비과 치안지도관으로 보임됐다.

기존 치안지도관이었던 양정환 총경은 영암경찰서장으로 옮겨게 됐다.

이번 인사는 지난 2일 윤 총경의 기동대원 폭행이 고려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경은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 화물연대

목포지부 조합원 50여 명이 공장 배차 등을 요구하는 영암 대불산단 집회 현장에서 전남경찰청 소속 기동대 대 경찰의 뒤통수를 한 차례 가격했다.

해당 경장은 지시를 받고 이탈자를 체포 중이었지만, 윤 총경은 행동이 늦고 무전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직장인 커뮤니티와 경찰 내부망에 확산돼 논란이 일었고, 윤 총경이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해 사건이 일단락 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남구, 백운광장 '공영주차장·로컬푸드 직매장' 본격화

광주시 남구는 "백운광장 일대를 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스트리트푸드존 인근에 대형 공영주차장과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을 각각 오는 9월과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고 15일 밝혔다.

남구는 94억여원을 투입해 광주 남구 백운

동 613-1 일원에 공영주차장과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건립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인 공영 주차장(면적 5540㎡, 지하 1층-지상4층)은 차량 154여대를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은 지상 1층에 490㎡ 규모로 만들어진다. /장혜원 기자 hey1@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자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